

세계화와 차이나쇼크(2)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오래전 미국 뉴욕 심장부인 무역센터 쌍둥이빌딩이 비행기 테러를 당했다. 동독과 소련을 붕괴시키고 중국까지 개혁개방으로 미국을 닮아가기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 판에 된 통 얻어맞았다. 그러나 미국이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것은 이해할 만하다. 1980년대 일본이 뉴욕빌딩을 사재기하고 할리웃의 영화를 삼켰을 때보다도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다. 그래서 노발대발 핏대를 올려가며 방위능력 의지도 능력도 없는 아프가니스탄을 한방 먹였다. 쌍둥이 빌딩 테러주범을 응징하고 죽이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돌산들을 최신에 폭탄으로 융단폭격을 가했다. 애꿎은 아프가니스탄에 불쌍한 난민과 사상자를 냈을 뿐이다. 그리고 미국 청년들을 사막에서 헛고생 시켰을 뿐이다. 왜 전쟁을 일으켜 세계인들을 불안에 떨게 했는지 궁금했다. 그런 것을 보면 미국은 아니 미국 수뇌부는 허공에 대고 화풀이를 친 셈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친 김에 꼴통 부시 정권은 이라크를 적으로 삼았다. 후세인을 이라크의 지도자로 만들어 줄 때는 언제고 독재자 후세인을 응징하여 이라크 국민을 해방(?)시켜준다는 명분은 무엇인가.

후세인을 처치하고 전쟁을 끝냈다고 선언한 지 오래지만 아직도 이라크는 평정되지 않았다. 대형 살상무기 정체를 찾지 못했고 이라크를 해방(?) 시켜주지도 못했다. 오히려 현지인과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고 또 전운만 키웠다.

그래서 평화와 건설을 위한 한국의 파병도 고민거리가 됐다. 미국과 이해관계 때문에 파병을 약속한 각국이 파병을 철회하거나 심각한 재고에 들어가곤 했다. 게다가 포로의 잔인무도한 학대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세계에 알려지면서 미국 수뇌부는 세계 각국의 비난을 면치 못했다. 청문회에서 럽스펠트 미국방장관은 언론에 유포된 포로학대 사진보다 더 잔혹한 사진이 있음도 인정했다. 이라크에 주둔한 미국 내에 조직적이고도 치사한 포로학대가 있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라크 전쟁을 지휘한 책임자 국방장관으로서 그의 자리는 위태롭기는커녕 더욱 공고해졌다고 그는 뻔뻔하게 장담했다. 세계의 비난과 야유는 아랑곳 할 필요가 없었다. 그만큼

초강대국 미국의 힘이 뒷받침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미국인 60%이상이 대 이
 라크 전쟁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니 미국은 집단적으로 미쳤다고 할 수 있었다.

사실 후세인 독재에 괴로움을 당하던 이라크 국민 해방은 전쟁목적이 아니었다. 당초부터 미
 국으로서는 석유를 탐낸 전쟁이었다. 그러기에 미국인들도 모두 한 통속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더 많은 식민지 확장에 도취했던 로마인들과 같았다. 이런 것들이 세계평화를 명분으로 한 팩스
 로마나(Pax Romana)처럼 팩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단면이었다.

이것이 세계화의 단면이기도 하다. 로마는 더 큰 외세에 의해 망하지 않았다. 스스로 미쳐서
 붕괴했다. 집단적 최면에 의해 잔인해지고 환락적 소비를 즐겼다. 거의 오로지 미국만이 선진국
 이라고 믿는 미국지상주의자들의 환상을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 수십 년간 우방이면서도 결코
 한국의 미국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을 위해 미국은 행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
 국을 배타하거나 내 몰 한국현실은 더욱 아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2월 22일 (금)	12월 26일 (화)	12월 27일 (수)	12월 28일 (목)
미	달	러	(USD)	1303.80	1300.70	1296.80	1294.40
일	본	엔	(JPY)	917.59	914.63	911.15	914.16
영	국	파운	(GBP)	1653.87	1652.67	1650.57	1657.16
캐	나	다	(CAD)	981.63	981.22	982.91	980.16
홍	콩	달	(HKD)	166.94	166.55	166.09	165.71
중	국	원	(CNH)	182.39	181.85	181.45	181.04
유	로	화	(EUR)	1435.29	1433.50	1432.19	1437.75
호	주	달	(AUD)	886.39	885.71	885.65	886.60
싱	가	폴	(SGD)	982.81	982.18	979.97	980.75
말	레	이	(MYR)	280.06	280.81	279.54	279.63